

서 면 질 문 답 변 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

- | | |
|---|-----|
| ○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관광콘텐츠 현황
- 에코브릿지 전망대형 육교 조성사업(포함) | 2쪽 |
| ○ 먹거리 연계 등을 통한 관광산업개발의 발전전략 | 5쪽 |
| ○ 시장의 관광철학과 체류형 관광의 추진현황 | 8쪽 |
| ○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 꼬막거리 활성화 사업 실패 및 향후 대책(포함) | 10쪽 |

제 천 시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정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직위 제천시장 성명 이상천
제목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및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관광미식과 】

1.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관광콘텐츠 현황
 - 에코브릿지 전망대형 육교 조성사업(포함)
2. 먹거리 연계 등을 통한 관광산업개발의 발전전략
3. 시장의 관광철학과 체류형 관광의 추진현황

【 일자리경제과 】

4.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 꼬막거리 활성화 사업 실패 및 향후 대책(포함)

답변내용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미식과

1.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관광콘텐츠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산업의 관광콘텐츠는 제천시 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총5개 권역(①도심권, ②의림지권, ③박달권, ④청풍권, ⑤월악권)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도심권 관광콘텐츠는 시티투어·러브투어 프로그램, 교동민화마을, 5개 전통시장(중앙·내토·동문·역전·약초), 약선음식 거리 등이 있으며, 구 동명초 야외수영장, 스케이트장 및 문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지는 제천 겨울왕국 축제도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인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도심수로사업과 함께 명동갈비 거리, 여행자의 거리, 매운 음식 축제, 가스트로 투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또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의림지권 관광콘텐츠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누워라정원, 한방치유숲길 등이 있으며,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사업으로 조성될 유리전망대가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 준공 예정인 2단계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대형주차장, 농경문화체험장, 물놀이장 등이 의림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일원 복합리조트 민자유치 추진과 연계하여 비룡담, 피재골,

용두산, 까치산을 아우르는 의림지권 종합관광개발구상 용역을 통해 의림지권역에 향후 약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천관광 1번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 세 번째 박달권 관광콘텐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박달재와 휴양림, 리솜포레스트, 배론성지, 탁사정 등의 관광콘텐츠가 있습니다. 문체부 주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천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 99억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되어 2020년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 확보됨에 따라 2020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네 번째 청풍권 관광콘텐츠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청풍리조트, 청풍랜드, 문화재단지, 관광유람선, 수상비행장, 청풍호반 케이블카, 벚꽃축제, 한지체험장, 탐험전시관, 한방자연치유센터, ES콘도, 정방사, 솟대문화공간, 금수산 힐링센터, 약초생활건강, 옥순봉, 자드락길, 슬로시티 등 다양한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했던 야간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청풍호반 케이블카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체부 주관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 222m의 옥순봉 출렁다리가 2020년 조성됨에 따라 청풍호반케이블카에 이어 또 하나의 우리시 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월악권 관광콘텐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월악산 국립공원, 용하구곡, 송계8경, 송계계곡, 덕주산성, 덕주사, 덕산 전통시장, 한수면 양파축제, 마의태자·덕주공주길 걷기 등의 관광콘텐츠가 있습니다.
- **다음은 관광콘텐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브릿지 전망대형 육교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삼한의 초록길 2.1km구간중 북부순환도 단절 구간에 보도육교를 가설하여 초록길의 연결성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지는 제천시 북부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한 지역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5월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 당초 2017년 폭 5m, 길이 35m, 소요사업비 25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투자심사 완료하였으나, 보행약자의 편리한 이용은 물론 관광 콘텐츠로써의 기능성 강화를 위하여 폭 5m~15m, 길이 195m, 소요사업비 약 46억원으로 확대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소요사업비 변경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내년 1월 중 시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코브릿지 전망대형

육교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삼한의 초록길이 우리시의 새로운 도심권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먹거리 연계 등을 통한 관광산업개발의 발전전략입니다.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단어가 생겨 날 정도로 음식과 관광은 불가분한 관계이며, 지역성을 강조한 음식은 그 지역만의 고유한 향토성으로 관광객의 중요한 관광 동기의 하나이자 관광경험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천시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슬로건을 기반으로 제천지역의 특화된 문화를 연계한 음식·관광·경제형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2019년에 미식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약채락 브랜드강화, 특화음식거리조성, 음식마케팅 업무 일체를 전담하여 제천이 ‘미식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 ① 약채락 브랜드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4대약념(藥念) 및 약채락 도시락 상품화 입니다.

현재 약채락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채락 R&D 상품으로 황기막간장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으며, 당귀약 고추장, 약초페스토, 뽕잎소금 등 약채락 3종 약념도 추가 개발

하여 황기막간장과 함께 4대 약념(藥念)으로 세트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 약념(藥念)을 기본으로 약채락건강도시락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한방바이오박람회시 첫 런칭을 하여 시범운영 한 결과 2,400개의 도시락이 완판되어 상품화 성공가능성을 엿보았으며 현재 관내 약채락 2개 음식점소에서 카카오플러스친구와 배달의 민족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② 명동갈비골목 특화 및 가스트로투어 상품개발입니다.

제천의 새로운 콘텐츠발굴 및 관광산업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약선음식거리를 재정비하여 명동갈비골목과 가스트로투어 특화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명동갈비골목은 서울의 명동이라 불릴 정도로 예전에 제천의 중심가에 있는 식도락거리였고 예전의 명성도 다시 살리고 제천만의 특이한 먹거리를 위해 지정하게 되었으며, 12월 20일부터 6일간 제1회 핫앤스파이시푸드 페스티벌(매운음식 축제) 행사를 통하여 명동갈비골목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가스트로투어는 음식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미식여행”이라는 뜻으로 약 2시간 동안 도심의 약선음식거리와 전통시장을 걸으면서 다양한 음식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맛보는 도심형미식여행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맛있게 제천의 도심을 걷자”라는 콘셉트로 여행사, 블로거기자단, 여행작가, 방송사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내년 1월 제천 시티투어와 연계, 상품화하여 침체된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③ 제천 맛집선정 및 2020미식도시 선포입니다.

제천 대표음식 브랜드 약채락 표준화 및 타켓별 대표음식 상품화를 통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지역내 음식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품질인증제를 마련하여, 대표맛집 선정 및 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니즈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그간의 우수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알려진 맛집은 물론 숨은 맛집을 발굴하여 선정된 제천 맛집 30곳을 내년 ‘2020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을 개최해 그동안 풍부한 식재료와 뛰어난 맛에 비해 덜 알려졌던 청정 자연 제천지역 음식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맛있고, 편하고, 재미있고, 가치있는 음식을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행복과 즐거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음식에 어떤 가치를 담을지, 음식을 통해 고객에게 어떤 경험과 즐거움을 줄 것인지 고민하며, 건강한 제천음식을 통한 패스형

관광의 한계를 넘어 맛있게 즐기고 머뭇이 있는 미식 관광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시장의 관광철학과 체류형 관광의 추진현황입니다.

- <축적의 길>이라는 책에 “경기가 늘 좋다가 최근 갑자기 나빠졌다면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일 것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급히 고치면 되지만, 수십 년간 추세적으로 나빠져 온 것이라면, 접근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듯 그동안 민선시대를 오면서 충분한 시행착오와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걸맞는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 ① 인구 2만 5천명의 산골 마을에 축제 기간 동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만 170만명에 이르는 “화천 산천어 축제”
 - ② 한 농부의 열정으로 시작되어 약 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야외 음악공연 축제인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 ③ 특별한 자연 조건이나 문화 자원 없이 엄청난 양의 버려진 캔을 재활용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명해진 호주의 ‘비어 캔 레가타 축제’
 - ④ 군악대 축제, 책 축제 등 연간 20여종에 가까운 지역 축제를

펼치면서 약 800억원의 수입을 창출하며 유럽의 꽃으로 자리 잡은 영국의 ‘에딘버러시’가 있습니다.

- 정체성을 살린 브랜드 작업(스토리텔링), 보는 관광(축제)에서 참여하는 관광(축제)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천만의 색깔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제천에서 머물고 싶은 제천, 나아가 삶을 살고 싶은 제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계절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의 개최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썰렁한 겨울 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사계절 축제의 도심 개최로 관광객이 지역 중심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 음식관광의 특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미식과를 설치하였으며, 제천 맛집 30개소 선정, 약선거리의 식당을 연계한 미식관광 도보상품인 가스트로투어 개발, 약채락 4대 약념(藥念) 상품화, 스타셰프 이벤트 등 우수한 먹거리를 관광에 접목시켜 미식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2020 미식도시제천 선포식’을 통해 제천의 ‘맛’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제천을 방문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은 현재 특구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용역이 추진중으로 특구지정으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정원 조성 과 에코브릿지 조성 등 연관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본격 추진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수로로 특화할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외부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할 계획이며, 제천을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천1주일 살아보기,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도심 관광수요에 대비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제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게스트하우스 3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림지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업체와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의 체류형 관광을 위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4.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 청년몰 사업은 젊은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사업위치는 중앙시장이며 2017년 12월 사업장 조성 및 청년상인 입점을 마치고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몰에 입점한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몰에 청년의 도전정신과 젊음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청년몰을 청년 영화인의 거리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와 구별되는 젊고 특색있는 쇼핑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의 젊음에 상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 짐프카페, 도서대여, 영화상영관, 예술갤러리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콘텐츠를 도입하여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활력이 느껴지는 청년 영화인의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을 청년몰로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점 조건을 개선하여 청년상인 중심의 청년몰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되어, 구역 및 인테리어 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상인의 입점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상인 입점 시 희망 사업에 최적화된 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다양한 시민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청년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조성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시장의 유입인구가 현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인해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청년몰을 방문하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은 제천시뿐만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년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실업을 최소화 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직접적 해결 방안으로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이 시행중이며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청년상인 도약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 영농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여 5,688건의 구직상담과 1,854건의 취업 알선을 진행하였으며 573명의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비롯한 현장 면접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24개 기업, 151명이 실질적 취업기회를 부여 받았으며 이중 5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10억 2천만원 사업비 전액 국도비만으로 건립되는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양성과 함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취업 및 창업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관 유기적 연계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에 대한 능동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꼬맥거리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창업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제천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들과 함께 전통시장 내 먹거리 특화거리인 꼬맥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먹거리 브랜드 창출과 청년상인 창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추진 하였습니다.

꼬맥거리 사업은 올해 8월 매대운영자를 모집하고 9월 구분길 셰프의 메뉴개발 및 위생교육을 거쳐 10월 5일 동문시장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었던 제천 꼬맥거리는 지금까지 제천에서 접할 수 없었던 신선한 거리 분위기로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2019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더불어 인근 단양, 영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꼬맥거리를 찾아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통제에 따른 교통 불편과 동절기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지역 상권과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노상영업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 종료하였지만 제천 먹거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꼬막거리 조성사업은 개별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매대 운영자에게 점포 임대 및 외식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12월 현재 총 10명의 매대 운영자 중 3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 12월 20일부터 7일간 여름광장에서 꼬막거리 제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내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 사업을 위한 1억 5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일자리 사업은 보다 내실 있는 청년지원 정책 마련하여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메뉴개발 및 위생교육은 물론 영업장 운영과 홍보 마케팅 분야까지 세심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먹거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표축제와 연계한

4계절 4색 먹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특성화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청년 상인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를 포함한 지역 브랜드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